安東權氏 大宗院 典禮委員會 創立總會 開催

안동권씨 대종원 전례위원회 창립회 개최

안동권씨대종원 전례위원회창립총회가 6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안동권씨대종원안동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권정달 총재, 권계동 상임 부총재, 권재주 안동종친회장과 선임 된 전례위원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권순갑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太師公)께 망배(望拜), 상읍례(相揖禮)가 있었다. 이어 권정달 총재는 참석한 전례위원에게 일일이 선임장(選任狀)을 전달하였다. 권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시조묘소(始祖墓所)와 낭중공단소(郎中公壇所)의 춘추향사(春秋享祀)의 봉행(奉行)을 위한 제례준비는 물론 권문이 대표해서 시행하는 제례도 담당하여

△6월4일, 안동대종원 사무실에서 전례위원회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하였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숭조이념(崇祖理念)의 확립(確立)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임시의장을 맡은 권계동 상임부총재가 회의를 주재하여 회칙 초안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 후 통과시켰다. 이어서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감사선임, 전례위원 역할분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기타 토의 시간에 '제례위원회(祭禮委員會)'를 '전례위원회(典禮委員會)'로 수정하자는 안이 제기 되었다. 이 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수결(多數決)에 의해 '전례위원회(典禮委員會)'로 결정하고 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겐 권경웅 전례위원장이 기증한 타월 한 장과 양말 두 켤레를 선물로 주었다. 총회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회관 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으며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분위기(雰圍氣) 속에서 정담(情談)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태동서원 추연선생 향례봉행

지난 5월4일 오전11시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소재의 태동서원(泰東書院, 원장 정태수)에서 향례가 거행됐다. 이날 향례는 초헌관에 성균관 고문인 김연 전 문화원장, 아헌관 김상경(후학), 종헌관에 서동주(후학), 집례 노영칠(후학), 축 이용규(후학)씨가 맡았으며, 원장 정태수, 외임 이길영(삼가), 내임 권갑상, 문성화 유림회 사무국장, 차관암 문화원장, 강인수 합천신문부설 한문대학 훈장, 권동술 전삼가향교전교. 권용현 유학 등 합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유림과 후손들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향례는 매년 음력 3월25일 오전에 지낸다.(내임 권갑상(010-5208-3737))

△태동서원 향례 분정을 보이고 있다.

태동서원은 영남유림의 거목인 한학자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8)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뜻을 모아 창건한 서원이다. 또한 유학자를 배향하기 위해 서원을 지은 사례는 중재 김황(1896~1978)을 기리는 도양서원 이후로는 처음이다.

추연 권용현 선생은 기호학파의 태두인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의 학맥을 이어 발전시킨 근세 유림의 대학자이며, 생전에 선생은 시류를 따르라는 주위의 권고에 굴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다른 뜻을 가지지 않겠다."며 전통 유학자의 길을 고집했다. 평생을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했으며, 말년에는 후학들이 마련해준 태동서사에서 수많은 문하생들을 길러냈으며, 1988년 타계했을 때, 전통 유림장(儒林葬)으로 치러져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태암산 동쪽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딴 태동서원은 동양의 도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태동서원은 전통 사원건축 양식에 따라 교육장소인 강당과 기숙사인 서재를 갖추고 있다.

위패를 모신 사우(祠宇)를 제외하곤 단청이 없어 소박하고 고고한 선비 정신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향례에서는 평소 성독음성과 맹자 강의 내용이 담긴 CD 자료집 "추연선생의 논어성독, 맹자강의"를 발행·배부했다.

월찬 스님 녹음, 이병혁 부산대 교수 보존, 권갑상 태동서원 사무국장이 편집했으며, 추연선생의 논어 성독 2개, 맹자강의 3개의 cd가 담겨있다. 자료는 추연선생의 만년에 녹음한 테이프를 장기보존을 위해 디지털로 변환하였으며, 초기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하나, 학계와 후학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한정판으로 배포되며,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자료의 비용은 선생의 손자인 권문상 변호사가 전액 출연하였다.

〈槐雲 權海兆(복야공파 36세손)〉

권영성부총재 한국로타리총재단 의장당선

권영성 본원 부총재가 지난 5월21일 오전 11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로타리 총재단 전기총회에서 2014-15년도 의장 선출에서 다수의 득표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일산(壹山) 권영성(72.영천.추밀공파 양촌공계 34世)의장은 영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83년 11월 조양주택건설(주)사장, 영천시 골프협회장, 민통영천시협의회장, 영천의회의원 초대의장,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도청유치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30세부터 오문 문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여해 영천청년회장, 종친회장을 지냈으며 현 대종원 부총재, (주)진흥 회장으로 크게 활동하며 영천지역에서 중견기업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78년 7월 영천로타리클럽에 입회해 총무·재무·회장·총재지역특별대표·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지구재정위원장 등 30여년간 사회봉사에 앞장 서가며 지대한 공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씨는 前에 대종원 회관건립 및 2세조 청도 낭중공단소 이단 추진에 크게 진력하기도 했다.

씨의 선대계보는 추밀공파 양촌공계 34世이며 9대조(휘 수) 묘소는 대구에 있다. 그리고 직계 선조사업으로 포항에 50여평에 자비로 본인의 호(號)인 일산 농막 즉 '일산서(壹山墅)'의 집을 지어 형제 4촌간의 친목모임인 '21종반회'의 모임장소를 만들었으며, 시조(始祖)로부터 33世(諱 字別)까지 자연석에 각자(刻字)하여 후손들에게 족보·뿌리교육의 산실을 제공했으며, 더불어 직계 9대조 이하 묘소마다 원석으로 석물을 세워 타문중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씨는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상, 평통의장상, 철도청장상, 국제로타리회장상 등 다수가 있으며, 공(公)과 사(私)를 가리면서, 새 역사 창출에 한 장(章)을 펼쳐가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강릉대사성공종회 제35회 정기총회

△대사성공종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권명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릉 대서성공종회(회장 권명준)는 지난 6월13일 강릉시 옥천동 '보진당'에서 남여족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춘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원로고문과 먼거리에서 참석한 족친을 소개했으며, 이어서 권명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되어 반가우며 오늘 총회에 먼거리 울진에서 참서한 권영호족친과 여자 네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곳 '보진당'은 본인 18代祖께서 남기신 별장이며, 현 강릉문화재로서 여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권혁길대성회장은 '대성회'를 소개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원 배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권우석 前회장은 보학강의로 임향조 현령공부터 대과에 급제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권혁춘총무가 보진당 內 새로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보고했으며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함께 강릉단오제를 관람했다.

〈권현주 재무〉

동정공파임동지곡문중 시·아조묘소 참배

동정공파임동지곡문중(회장 권영환)은 관광차편으로 70여명이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30분 안동 시조묘소에서 주·과·포를 진설하고 영환회장의 헌작으로 함께 참배했으며 이어 하산해 낭중공 단소에서 회장이 헌작하면서 참배해 시·아조님의 음덕을 기리었다.

〈권혁세 기자〉

설암 권옥현 모암계(慕巖契) 계사년 총회

지난 6월2일 (음력 4월23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금남서당(金南書堂) 정원에서 모암계(慕巖契) 계사년 연례총회가 열렸다. 모암계는 복야공파 감정공 삼괴당(三槐堂)계 시조후 35세 설암(雪巖) 권옥현(權玉鉉) 공을 기리기 위하여 문인 후학들이 그 호를 따서 지은 계모임이다. 금남서당은 고인이 만년에 거처하다 고종(考終)한 고택이다. 설암공은 복야공파 감정공계 35세 추연(秋淵) 권용현 선생의 적전(嫡傳)으로 1999년 88세로 별세하였다. 모암계는 공의 별세 후 3년이 지난 2002년에 그의 문집 18권 6책이 발간되면서 그 문인들과 후학들이 결성하여 매년 6월 첫 주 일요일에 정례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12번째이다.

△금남서당에서 모암계 총회 모습.

이번 모임에는 부산에서 모암계 계장 이병혁(李炳赫) 전 부산대 교수, 권길상 (權吉相) 안동권씨 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들과 서울, 대구. 마산, 합천 등 원근에서 70여명의 계원들과 가족 친지 등 100여명이나 모였다.

총회는 정영만 (鄭永萬) 유사의 사회로 개회되어 상읍례(相揖禮), 묵념, 회장인사, 축사 및 내빈인사, 경과 및 결산보고, 강론(講論),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계장 이병혁은 휴일에 바쁜 시간에도 경향각지에서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함을 전했다. 그리고 올해로 선생이 기세(棄世)하신지 15년이 되었고, 모암계도 12번째 되는 해로, 고인의 높은 유덕으로 오늘 날씨도 좋고 참석자들도 점점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강론과 만시(挽詩) 낭독이 있었다.

강론은 부산 대동고등학교 김영석(金永碩) 선생이 설암문집에 있는 쇄록(瑣錄)에서 발췌한 7편을 하였고, 만시는 '권춘호(權春湖)에 대한 병현(丙賢) 2수(首)를 권중원 회원이 낭독하였다. 강론내용은 주로 사람의 언행에 대한 설암공의 생각을 피력한 내용으로 계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만시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친구를 잃은 슬픔에 젖은 글로서 청중들에게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는 설암공의 영정(影幀)을 그린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설암공의 이질(姨姪) 한만상(韓萬想)씨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자기가 그린 고인의 영정에 다 같이 묵념을 올리고, 고인의 생전의 일화를 소상히 소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금정구는 문화과학의 지역구로서 범어사 통로에 마련된 문화공원에 지역구에 관련된 설암공 시문을 발췌하여 비석을 세우는 방안을 토의하였고, 내년(갑오년) 총회는 설암공의 고향인 합천 대병 죽전마을 생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잠정합의하였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준비된 뷔페 식사를 하면서 담화를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부산 종친회장 권길상〉

창수공 묘역 고양유림 순례교육

△권정택씨가 고양시 유림의 창수공 묘역 답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석동 감내 선영에 2013년 5월 6일 10시 정각 고양유림 고양향교 전교 이세준(高陽鄕校 典校 李世濬) 전교 이영찬(典校 李英贊)외 15명이 9시 고양유림회관(高陽儒林會館)을 출발하여 9시 50분경 도착하여 21세 별의 묘소 위 황용산 산신(山神)에게 산신제(山神祭)를 올리고 석주공의 양부이신 별(擎) 선조 성균관태학사 별자 선조의 설명을 시작으로 다음 계하인 석주공(22세) 석주공 필의 양력과 경륜을 설명하고 남서쪽에 계신 창수공 묘소 참배와 설명을 상세하게 하였다. "오늘 문중에서는 원로이신 권병홍옹이 참석하였고 방손인 권정택 기로회장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배부하여 충분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음순서는 19世 창수공(倉守公) 억(憶)의 묘소를 찾았다. 공은 성품이 순겸(純兼)하고 소시부터 호학다문(好學多聞) 하였으나 선대에서 내린 물부과거(勿赴科擧)의 유명을 지켜 백씨 결성공(結城公)과 함께 과장(科場)에 나가지 않았다. 음사(蔭仕)로 나가 군자감부감(軍資監副監)을 거쳐 통훈대부(通訓大夫) 광흥창수(廣興倉守)에 이르렀다. 中宗13年 1518년 10월 8일자 실록에 상의원별좌(尙衣院別坐)로 나오고 中宗 20年 1525년 10월 16일자에는 세자궁(世子宮)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中宗34년 1539년 정월 18일에 졸했다. 유집(遺集)을 남겼으나 임진변자(壬辰丙子)의 양란(兩亂)으로 실전되었다. 뒤에 자손이 귀히 됨에 따라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20세 승지공承旨公 기(祺)는 좌승지, 형조참의(刑曹參議)와 경주부윤(慶州府尹) 의망 되시고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으로 마지막 관직탐방하고 아랫 감내로 내려가 21세 습제공(習齊公)묘소와 묘비를 찾았다. 습제공 벽(擘)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에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겸하여 중종·인종실록(仁宗實錄)을 참수(參修)하였다. 성균관 사예 춘추관편수관(春秋館 編修官) 감군어사(監軍御使)가 되어 관서지방에 나갔다. 승무원 교감을 겸한 종부시 종부시와 장학원의 첨정 선조 1년 1568년 우통례와 군자감 좌통례 등으로 머물며 선조 3년 1570년 종부시정으로 춘추관을 겸하여 명종실록을 참수(參修)하였다. 후에 嘉善大夫 禮曺參判 겸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으로 문집을 29권을 편집하였다.

21세 별(擎)은 성균관(成均館) 태학사(太學使) 이외에는 기록이 실전되어 알 수 없다. 너무 젊은 나이 30대 중반 졸하시니 알 수 없다.

22세 별좌공(別坐公)위(韡) 는 수성금화별좌(修城禁火別坐) 밖에는 모른다. 22세 송화공 인(靭)은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을 하고 경명행수(經明行修) 의금부부도사(義禁府副都事) 송화현감(松禾縣監) 황해감사(黃海監査)가 되었다. 후에 자손이 잘됨에 좌승지(左承旨)로 증(追贈)되었다.

22세 초루공(草樓公) 겹(韐)은 시에 능하며 석주공石洲公과 같이 인조반정후(仁祖反正後)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고 도의문장(道義文章)으로 자연스럽게 선율이 되었는데 원고를 비축하지 않았고 5형제가 모두 시명이 있으니 형제의 시문집 연 주편이 있고 초루자집 있다. 문집에 있다. 당가오두(唐家五竇)에 비의 했다. 수는 70세이며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追贈)되었다.

22세 睡隱公 韜 와 22세 石洲公 韡은 특히 우애가 깊었으며 강산칠현(江山七賢)·강산칠우(江山七友)·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고 했다. 이 두 분의 경륜과 시문의 설명은 강의자료에 조금이나마 기록을 하여 설명하고 오늘의 순례교육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교육장에서 용강서원 참배를 하고 점심연회를 가졌다. 점심연회의 식대를 용강서원에서 제공하여 서원원장님의 배려가 되었다. 서로의 인사와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 차후 유림과 창수공 문중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성균관 전의 권정택〉

부정공파 대구돈목회 제56차 정총

새 회장에 권순룡씨 선출

지난 5월11일 오전 11시, 대구시 약전골목 '이정회관'에서 파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완오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오찬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기갑고문의 축사가 있었다.

권원빈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의 경과·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순룡씨가 선출되어 신임 인사가 있었으며 기타 토의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면서 족친간의 족의를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한눈에 보는 우리의 선조 안동권씨 세계도(世系圖)

처음으로 출간한 안동권씨 세계도는 시조부터 18세까지 모두 수록하고, 19세 이하 행 2품직과 부조지전, 정려, 서원배향, 사당에 모신 선조님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보도(譜圖) 로 도식화하고
파조향사, 정승판서, 권문의 상경신, 항렬표 등 수록
능동재사, 시조향사 등 사진 11매 칼라 실사출력

규격 : 가로 200cm 세로67cm 정가3만원(보관통, 우편료 포함)
연락처:02)2695-2483/4 Fax:02)2695-2485

안동권씨대종원